

라합의 선택 (여호수아 2:8-21)

오늘 라합의 선택이다. 라합은 보통 여자가 아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려고 한다. 답이 있으면 걱정이 없다. 답이 있으면 우울증도 나아버린다. 답이 있으면 누가 뭐라 해도 관계 없다. 나는 답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답을 라합을 통해 다시 말한다. 라합은 기생이었다. 한마디로 하면 인간은 누구든지 언약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 왔다. 그 원죄의 저주를 피할자가 아무도 없다. 그 때부터 사단이 역사하는데, 사단을 이길자가 어디 있는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이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 언약으로 살아야 한다. 진짜 잡으면 진짜 역사 일어난다. 진짜 잡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대총 잡고 살아도 지옥 안간다. 그런데 손해를 본다.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 언약 안에는 권세가 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왜 안되냐고 하는 분도 있을수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 가장 좋은 때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 아주 틀림이 없다.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지옥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게 된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인생이 계속 회복되어 진다. 언약 안에 어느날 들어가는 그 날로부터 시작된다. 시간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수 없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시간표를 잡고 계신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 때가 되면 해방된다. 흑암세력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 전에 간증했다. 30년전에 있었던 불안증이 어느날 저녁 찾아왔다. 이 증세가 나온지 30년이 되었는데, 어느날 저녁에 똑같은 증세가 찾아왔다. 잠이 안오는 것이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랬다. 그런데 그 불안증이 5년을 갔다. 이유를 모르는 것이다. 아침에 눈 뜨면 한 10분정도 괜찮다가 20분 안에 증세가 시작된다. 기도해도 안되는 것이었다. 아침에 주로 힘이 드는데, 힘이 들면 전화벨이 울리면 또 누가 전화를 하나 싶다. 여보세요 할 힘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날 기도하는데 한 1분 안에 잠깐 기도하는데 날라가버렸다. 중요한 것은 기도내용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말씀이다. 하나님, 건강을 주시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기도했다. 아무것도 한 것 없다. 차타고 다니면서 손들고 그렇게 몇 번 기도했다. 그냥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인간이 간사한 존재인자라, 그러고 난 후에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검사를 하게 되었다. 검사하니까 위와 식도, 대장을 검사를 하는데, 옛날에 식도에 만성 염증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한국에서 들은적이 있었다. 그래서 식도가 쓰리고 열이 나고 아팠다. 그래서 생각에 이것은 분명히 뭐가 있다고 생각했다. 너무나 불안해서 괴롭고 그랬다. 그래서 늘 수시로, 침대에서 무릎꿇고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해주셨다. 예전에 내가 손들고 복음 전하겠다고 그것을 잊어버린 것을 알았다.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문 열리는 곳에도 가고, 남미도 간다. 다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의식이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그러면 해도 아닌 것이다. 내가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또 회개하고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나 하면서, 5년동안 그 고생하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준 것을 잊어버린 것이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고 미국은 시스템이 예약하는데 3주이상이나 걸렸다. 한국은 바로 할수 있지만 미국은 3주나 기다리라고 하니 불안한 것이었다. 결과는 전부 깨끗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 뜨겁고 그런게 어디서 왔냐는 것이다. “잊어버리지 마, 너는 나에게 한 말을 잊어버렸잖아. 나는 니 기도 때문에 너 병 고쳐줬는데, 너 잊어버렸잖아?” 회개하고 다시 한번 가슴에 심었다. 팬더믹이라 뛰어나다니는 못해도 가슴에 심었다.

사람이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이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거기에 완전하게 있고 영원히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 믿는다. 이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걸 영원한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이며, 인생 전체 모든 것을 뒤집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는다. 깊이 누려지는 축복도 있기를 바란다.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할 필요 없다. 누리고 있으면 자동으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사단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해방된다. 치유정도가 아니라 해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복할수 있다.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요셉은 역전을 거듭해서 노예가 총리되어 버렸다. 모세는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로 오는 기간 동안에 기적의 연속이었다. 모세가 한 것은 하나 뿐이다. 희생제사 언약잡고 하나님이 가라는 가나안으로 무조건 가는 것이었다.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것이다. 너는 니 언약 그리스도, 십자가

를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아가. 그러면 너의 인생이 모세처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 주는 메시지이다. 사도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너무나 많이 받았다. 그런데 그는 세상 역사도 바꾼 사람이었다. 누가 이렇게 할 것인가? 세상 역사를 바꾸어 버렸는데, 놀라운 일이다. 이보다 큰 응답이 없다. 그런데 우리도 이 길을 가고 있다. 우리는 미국 복음 역사에 새로운 역사를 쓸 교회이다. 잊어버리면 안된다. 우리는 미국 복음 역사를 새로 쓸 교회이다. 분명히 된다. 남미에서 수많은 제자가 일어설 것이다. 그 제자들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복음을 받을 것이다. 앤세나나 컨퍼런스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50여명 올것인데, 그 중에 10여명이 미국 현지 선교사 또는 제자들이다. 귀중한 출발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 지를 모른다. 때가 되면 손들고 몇 번 기도했는데, 불안증 날라갔다. 사단 나가떨어져버렸다. 때가 되면, 만일 지금이 그 때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우리 인생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문제에 일어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완전한 답을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이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고 이것을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기준하면 왜 나는 응답이 안되냐고 하면 안된다. 나는 인생이 왜 그런가 말하면 안된다. 나는 왜 기도응답이 없어? 말하면 안된다. 틀림 없다. 안봐도 안다. 언약을 확실히 안 잡았기 때문이다. 전도하면서 청년보고 말했다. 나는 니 인생에 답을 가지고 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마찬가지로이다. 여러분이 대총잡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답은 딱 한 개 있다. 그리스도이다. 너무 간단하고 선명하다. 누구든지 이 답으로 살아야 한다. 렘넌트들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조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모세같은 인생, 라합같이 완전 역전되는 인생 살수 있다.

1. 여호와 하나님

기생인데, 창녀이다. 딱 뭘을 선택해느냐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기생 라합의 역동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기록이다. 라합은 다윗의 4대조 할머니이다. 그리고 룿이 이 라합의 며느리였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생 답게 그 선택이 아주 선명하다. 세상을 험하게 살았기 때문에 선택이 아주 선명한 여자 사명자였다. 정탐군하고 담판할때에도 결론을 간단하게 냈다. 그리고 즉시로 행동에 옮기는 선명한 사람이었다. 답 났다는 말이다. 이것이라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답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답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답이다. 그리고 그 영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소원을 선택하는데에 주저함이 없었다. 정탐꾼들에게 하는 고백도 너무 선명했다. 우리는 전부다 감당이 녹았다. 너희 하나님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나님이다. 너희가 홍해를 마른땅같이 건넌건과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왕에게 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아주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12절에는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므로 너희도 선대해라. 그리고 그냥 말만 하면 못 믿는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라. 그리고 증표도 내노라고 하였다. 아주 확실하다. 기생으로 살다보니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많이 속았을 것이다. 그런 인생 경력을 바탕으로 그날 확실하게 딜을 한 것이다. 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선대한것처럼 너희도 선대할것이라고 맹세해라. 그리고 증표 내나라. 말로만은 안돼. 아주 확실한 사람이었다. 나중에 결과지만, 평소에는 아버지나 형제들이 기생으로 살고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딸로 말미암아 다 죽는 상황속에서 이 사람들만 살았다. 완전 역전이다.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했다. 자기 백성에 대한 어떤 생각도 없는 것 같았다. 간단하게 하나님을 선택했다. 자기들 힘으로는 절대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 답을 딱 냈다. 세상을 바닥에서 살아본 사람의 특징중 하나일 것이다. 아주 선명하게 결론 딱 내고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사명자의 특징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하나님 뿐이다. 하나님이라는 결론 하나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것이다. 엘리사가 그랬다. 딱 답 났다. 그 자리에서 농기구 다 불태워버렸다. 사도바울도 마찬가지이다. 그 다음날 바로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뒤집어 버렸다.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해도 우리는 예외일수도 있다. 성벽이 얼마나 높은가 이런식으로 생각했을수도 있다. 너희는 만나 메추라기 반석의 물 다 했지만 우리가 너희를 이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길수는 없어도 혹 불안한 생각에 잡혀서 보통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듯이 그럴수 있었을수 있다. 그러나 라합은 달랐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간단하게 결론내고 하나님 선택하고 끝내버렸다. 그리고 목숨걸고 정탐군 도와줬

다. 행동으로 옮겼다. 많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가? 죽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 것도 안해도 죽는 것이다. 정탐군 숨겨줘서 발각되도 죽는 것이다. 어려운 세파를 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계산에서도 아주 빨랐다. 이렇게 해서 짐승들도 다 죽었는데, 그는 살았다. 자신 뿐 아니라 온 가문이 다 살았다. 메시지가 무엇인가? 너도 이렇게 살아라. 그게 메시지이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을 보고 그것 되겠냐고 오만 소리가 많다. 속으면 안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우리의 아버지요, 창조주요, 그분이 약속을 주셨다. 그것이 언약이다. 이것 가지고 너 모든 문제 해결할수 있다고 하셨다. 믿어야 한다. 이걸 믿는 것을 가지고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다.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2. 붉은 줄

붉은 줄은 약속이었다. 라합과 그 가문의 생명이 여기에 걸려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봐도 된다. 12절에서 라합이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라고 하였다. 말로만 안되는데, 니가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증표를 줘라. 그 증표가 이 붉은 줄이 된 것이다. 21절에 보면 라합은 그들을 줄로 내린 후에 이 붉은 줄을 바로 창문에 걸었다. 굳게 매었을 것이다. 이것 아니면 죽기 때문이다. 확실하게 매었을 것이다. 아주 선명한 사명자였다. 18절에 보면 정탐군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이 창문에 붉은줄을 매고 모든 가족을 이 방안에 모으라고 하였다. 그런데 19절에 누구든지 이 집 바깥에 나가서 죽으면 그것은 자기들 책임이다. 그런데 이 방안에 있는데도 죽었다면 그 죄는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확실하게 선을 그어줬다. 언약의 표시, 붉은 줄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이 있는 것이다. 그 날 저녁, 피를 바른, 그 집에만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 이 붉은 줄이 라합과 그 가문을 건졌다. 언약을 잡은 자는 인생의 역전이 연속으로 일어난다. 기도응답이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안된다. 계속 일어나야 한다. 언약을 잡으라. 잘 안된다. 그래도 해라. 고백을 해보면 입에서만 나온다. 가슴에서 안나오고. 계속 해야 한다. 어느날부터 마음 깊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다. 거기에 가야 한다. 평소에는 기성으로 사는 딸이 얼마나 부끄러웠겠나. 그런데 그 부끄러운 딸 때문에 모든 가문이 살아났다. 오직 이 가문 외에는 살아난 사람이 없다. 여기고에는 짐승도 다 죽이는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은 물론 어린애도 다 죽이는 것이다. 라합도 창녀로 살고 싶어서 살았다기보다는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험한 인생 속에서 오히려 아무런 세상적 미련 없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다. 그 선택이 그런데 유일성 응답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다 죽었는데, 이 사람들만 살았다. 짐승까지 다 죽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살았다. 오히려 가문 전체가 살았다. 노아 이야기와 똑같다. 마지막 날을 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똑같다.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살 것이다. 이유는, 이 언약이다. 이후에 라합은 다윗의 할머니 되었다. 룯이 보통 여자인가? 그 룯이 며느리가 되었다. 신앙의 동지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 며느리와의 포럼을 생각해보면 대단했을 것이다. 시대적인 복음이다. 언약을 오직으로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주셨다. 그 이후로 영원한 축복을 받았는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기고전쟁은 라합에게 새로운 기회였다.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난리인데 라합에게는 그것이 기회였다. 세상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다. 전에는 창녀였는데, 창녀라고 할 사람이 다 죽었다. 라합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살 기가막힌 기회가 된 것이다. 영원히 잊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기 원하시는가? 이것이 언약이요, 십자가의 보혈이요, 너의 이런 인생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언약으로 잡으라는 것이다. 니가 죽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언약으로 잡고 누려라. 왜 죽으려고 하나? 언약을 잡고 내게 맡겨라. 그리고 항상 언약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선택하면 이렇게 된다. 내가 왜 이것을 성경에 썼겠는가? 너도 이 여자처럼 하라. 그러면 이 여자의 인생처럼 너희에게도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언약으로 잡으라. 진짜 언약을 잡으라. 그 때부터 출발이다. 그 이후에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다. 교회도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편안하게 예배드리시라. 다음주에도 피곤하면 교회오지 말라. 누워서도 듣고, 밥먹으면서도 듣고, 그렇게 하라. 하나님의 교회인데, 내가 죽으려고 하면 안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타 지역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장로님들이 시카고에서 예배드리는 분을 생략할때도 있는데, 거기 전도사님도 한분 계시다. 아

마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실 것이다. 타지역에서 샌디에고, 아리조나, 텍사스, 켄사스에서 편안하게, 여러분에게 오라 소리는 안하니까 더 잘되었다. 누워서 예배드리든, 밥을 먹으면서 드리든 언약 잡아야 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난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답을 하나 주었는데,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인 것을 믿는 것이다. 믿으면 그것을 쓰라. 고백 잘 안된다. 하나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은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쓰라. 기도를 쓰라. 그리고 은혜되는 성경구절 쓰라. 그렇게 해서 목표가 무엇인가? 언약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그래야 진정한 출발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세계복음화. 미국복음화. 옛날에는 미국 잘되었는가 하는 생각이 있었다. 근래에 문 열리는 것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미국, 남미, 램넛트, 다민족 기도한지 10년되었다. 미국 교회 문 열여달라는 기도는 4년되었다. 이제 생각 많이 다르다. 하나님이 시작한 것 같으니까. 될수 있다. 되면 어떻게 할거냐? 생각 많이 바뀌었다. 남미 마찬가지로. 베네주엘라, 쿠바에서도 목사를 모아놓을테니 강의해달라고 하였다. 전에는 남미를 향한 기도제목중에 하나가 목사 복음 운동이었다. 언약 기도 쓸때마다 기도제목도 쓰는데, 그것도 썼다. 때가 된 것 같다. 목사들을 몇백명 모아놓을테니 와서 복음 전해달라. 니카라과에 갔는데, 대충 이야기 하는데 250-260명이다. 베네주엘라 목사님 300명 모은다는 것이다. 쿠바 400명 잠자고 먹을 장소가 있다는 것이다. 만일 미국 교회에, 미국 목사님들에게 이런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남미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RU와 함께 가야 한다. 저 현장에 김상범 목사를 보낼 것이다. 본부 알게 되면 류목사님이 가실 것이다. 미국은 중요한 나라이다. 만일 미국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된다면 100년의 응답이다. 미국이 복음화 되면 남미는 저절로 따라서 복음화 된다. 어디서 이게 나왔는가? 너는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았는가? 내가 옛날에 몇 년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뭘 가지고 묵화하냐? 그러면 그리스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지체이다. 다른 것으로 살면 잘났는데, 똑똑한데 안된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한다. 내 십자가의 보혈 언약이 니 인생의 답이야. 잊어버리지 마. 매일 잡아. 자꾸 잊어버리니까 매일 잡아. 입으로 고백을 해. 잘 안될거야. 쓰라. 한번 두 번, 열 번 스무번 쓰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쓰라. 끝이 온다. 하나님이 인생을 라합과 같은 인생으로 뒤짚을 것이다. 우리가 만일 미국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면 유일성의 응답 아닌가? 어느 단체, 어느 교회가 미국에다가 복음을 전했는가? 쿼타늄은 미국 목사들에게, 나는 영어도 못하고 신학도 못 배웠기 때문에 신학을 이야기 한다면 겁난다. 미국 목사들. 나는 영어도 내가 쓰는 단어도 500개 밖에 안될 것이다. 일반 단어는 못 알아듣는다. 그런데 성경은 말할수 있다. 내가 있는 단어를 가지고 그것을 딱 말할수 있다. 단어가 많지 않고 말을 많이 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플하면서도 파워가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영어이다. 현장에서 배웠다. 그 시작이 2004년이었다.

다 죽어도 너는 산다, 이것이 언약이다. 사람들이 죽고 망하는 것은 너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세상이 망하는 것은 너에게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언약이고 역전이라고 하는 것이다. 언약을 잡은 너에게는 문제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노바디, Nothing의 메시지이다. 성경은 이에 관한 많은 증거가 있다. 언약은 환경을 뒤집어 버린다. 어느 인간이 환경을 뒤집는가?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중심으로 사건을 이끌어 가신다. 믿어야 한다. 그래서 실수도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항상 피할길을 줘서 저주 속에 안들어가게 한다. 이 피할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피할길을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언약이라고 말했다. 이 붉은 줄,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본래부터 하나님이 가신 목표이다. 언약은 본래부터 이런 것이었다. 그래서 언약가진 자를 통해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 언약을 가진 자에게는 유일성의 언약이 온다. 그 이후에 재창조의 축복이 계속 온다. 성경에 많은 증거가 있고, 우리 주위에도 많은 증인이 있다. 그 사람들 보고 언약 확인하기 바란다. 그래서 미리 승리하고 미리 정복하고 미래를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다. 미리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 이해가 안되었다.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출발이 언약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응답이 일어나고 변화가 계속 일어난다. 자동적으로 미래가 안 왔는데도 미래를 이기는 믿음이다. 미리 승리하고 미리 정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